

국가별 동향



영 국

‘애완용 닭’ 추위와 안전이 걱정스러울 땐



영국에서 닭들을 위한 눈에 잘 띠는 조끼(hight-vis chicken jacket)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일간 메트로에 따

르면, 닭 전용 조끼가 오믈렛(Omlet)이라는 회사에 의해 개발됐다. 바로 어두운 겨울 저녁을 앞두고 닭주인들이 마주할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회사는 “이 조끼가 어두운 저녁에 닭들을 잘 보이게 하고, 비와 진눈깨비로부터 보호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닭들은 이제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물론 조끼 내부에 방한 물질이 있어 추위도 잘 견딜 수 있다. 오믈렛의 이사인 요하네스 폴은 독특한 아이템을 내놓은 데 대해 “닭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길을 건너는 닭들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이미 열흘 동안 200개를 팔 정도로 인기가 많고 특히, 핑크색 제품은 노란색보다 두 배나 인기가 많다고 한다.

[노컷뉴스]



니카라과

503m 과일 파이, 기네스북 올라... ‘계란 6만개 사용’



503m 길이의 과일 파이가 화제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에서 만들어진 길이 503m의 과일 파이가 세계에서 가장 긴 과일파이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밝혔다. 기네스 측은 “전 최고기록은 멕시코의 한 베이커리가 세운 423m이었다”며 “니카라과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는 이 과일 파이를 만들기 위해 5개 블록에 걸쳐 테이블을 설치했다. 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재료는 계란 6만개, 밀가루와 설탕 65자루, 마가린 320상자, 설탕에 절인 과일이 담긴 양동이 7개, 딸기 100상자 등이다. 이 과일 파이는 약 6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관람객들에게 1인분 당 미화 0.8센트(약 850원)를 받고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던 한 대학생은 “이번 행사는 니카라과의 한 베이커리가 자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목표는 만 달러(약 5,300만원)”라고 전했다. 주최 측은 화상을 당한 어린이와 암 환자 어린이의 치료비로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503m 과일

파이를 본 네티즌들은 “재료가 엄청나다”, “계란만 6만개 대단해”, “기부 행사라니 훈훈하네요”, “파이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호주

“닭장에 갇힌 닭이 놓아 기른 닭보다 행복지수 높다”

자유롭게 놓아 기른 닭은 과연 행복할까? 자유방목해 키운 닭이 일반 닭장 안의 닭보다 행복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호주 뉴스닷컴이 보도했다. 호주 뉴스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브리스톨 대학 크리스틴 니콜 교수의 연구 결과 좋은 환경의 닭장 안에서 자란 닭의 스트레스와 사망률 수치가 자유방목해서 키운 닭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간의 이목을 이끄는 캠페인에 의해 자유 방목한 닭의 소비가 늘면서 자연스레 높이 치솟은 가격이 의미가 없음을 뜻 한다. 크리스틴 교수는 “비록 자유 방목하는 양계장은 닭에게 더 나의 삶의 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양계장 시설 수준은 매우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닭장 안에서 지내는 닭들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끼며, 방목된 닭보다 나은 ‘동물복지’를 받고 있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닭 방목장은 그 수준이 너무 다양해 환경이나 시설 측면에서 좋은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연구팀은 닭장에 갇힌 닭과 넓은 초지에 방목한 닭의 계란이 영양학적으로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신문]



베트남

남부 지방 최저 계란가격 형성

베트남의 남부 지방 양계인들은 “최근 가장 낮은 계란가격이 형성되었으며 그 이유로 농가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계란가격은 평균 0.57~0.67달러(USD)/10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달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이다. 한 양계인은 “우리 농장에서 하루에 약 22,000개의 계란을 생산한다. 지난 2주 동안 하루에 약 218~236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계란가격은 구정때까지 하향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소매가격은 1.04~1.18달러(10개)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asian-agribiz]



브라질

닭고기 가격 하락

경제연구센터(CEPEA) 조사결과에 따르면 브라질 내 닭고기 가격과 생계시세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요 감소로 파악됐으며 소매시장에서의 높은 가격형성도 한 몫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간의 CEPEA조사 결과 “가격을 회복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브라질 닭고기 소비경향을 조사한 결과 매월 둘째 주부터 약 2주간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ThePoultrySite] 양계